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19 석굴 조상기(造像記)



용문석굴 곶양동, 곶양동 불상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불감들은 80기에 달하는 조상기를 담고 있다.

기 위함이다. 먼저 최초의 조상기로 알려진 장락왕(長樂王 穆陵 亮)의 조상기는 곶양동에 위치하고 있다. 굴의 상단에 조성돼 있는데 장락왕과 장락왕의 부인 위지(尉遲)가 죽은 자식을 위해 미륵상을 조성해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 무애자재한 경지에 도달하거나, 삶이 주어진다면 천상의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물거나, 세상에 태어난다면 즐거움이 가득한 땅에, 고해에 들어오면 해탈하여 삼악도를 끊어 모든 중생이 함께 복 받게 하소서'란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미륵상을 조성한 것은 단순한 극락왕생이 아닌 생사의 경계를 끊고, 현실을 바꾸고자 한 복위의 독특한 신앙 형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조상기는 북해왕(北海王)의 조상기다. 북해왕과 관련된 조상기가 많은데 북해왕이 용문석굴 조성 초기에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북해왕은 어머니와 일찍 죽은 아들을 위해 많은 석굴을 조성했다. 북해왕의 어머니인 태비(太妃)도 용문석굴에 죽은 손자를 위해 미륵상을 만들고 조상기를 새겼다. 법생(法生) 스님은 효문제와 북해왕 묘자를 위해 석가모니불로 추정되는 불상을 새겼다. 504년 북해왕 사후 용문석굴 개착이 일

511년에서 534년 사이 20여 년 동안 북위시대 용문석굴을 대표하는 굴들이 만들어진다. 북위시대 용문석굴의 발전은 불교문화가 완성되고 불교국가로 자리잡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문석굴에 죽은 손자를 위해 미륵상을 만들고 조상기를 새겼다. 법생(法生) 스님은 효문제와 북해왕 묘자를 위해 석가모니불로 추정되는 불상을 새겼다. 504년 북해왕 사후 용문석굴 개착이 일

용화세계 기원 **미륵신앙 유행**

북위의 집권자들이 초기부터 견지해 온, 도교와 불교를 같이 존중하던 도불병용정책은 낙양천도 이후 거의 무의미해진다. 이 시기에는 북위상하계층 모두 불교에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북위시대 신앙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증거는 조상기(造像記)라고 할 수 있다. 조상기는 석굴 조성의 동기나 공양문, 조성자의 이름, 조성된 년월 등을 담아 불상과 석굴에 기록한 것이다.

용문석굴의 조상기는 200여 종에 달한다. 이중 곶양동에는 80종의 조상기가 기록돼있다. 특히 이 시기 조상기에 나타나는 신분이 다양하다. 귀족에서부터 승려, 속인의 남녀 모두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당시 불교가 북위사회에서 얼마나 성행했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황실과 관련된 일족들의 조상기다. 승려와 민간의 조성기도 있으나 왕실의 조상기를 살펴보는 것은 북위 불교를 극명히 알

시 중단된 점도 북해왕이 용문석굴 조성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광천왕(廣川王)과 관련된 조상기도 눈에 띈다. 광천왕의 조모가 죽은 남편을 위해 미륵상을 조성했으며 어린 손자를 위해 미륵상을 조성했다. 이 두 구의 미륵상은 503년과 504년 각각 조성됐다. 광천왕 태비를 위해 조성한 두 구의 석가상은 귀족들의 조상기와 함께 광천왕 태비의 조상기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광천왕 태비의 불상 조성에 귀족들이 함께 동참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안정왕(安定王) 관련 조상기도 중요하다. 그의 죽은 친족을 위해 석가상 1구와 미륵상 1구를 조성하며 용화세계에서 만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특히 석가상을 조성하며 미륵 용화세계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을 통해 당시 미륵왕생 신앙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58

무문관 무금선원 (無今禪院)

"이곳은 대한불교조계종 무문관입니다. 지금 각 방에는 단기 3개월 장기 6년간 묵언으로 방문출입을 하지 않고 하루 일종식으로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으니 물음이 계신 분은 배답사 주지 스님을 찾아가십시오. <종략> 대한불교조계종 무금선원 선원장 합장"

지난 해 11월이었다. 동양계 결제 하루 전날 배답사 무금선원. 법납 20년이 넘는 구참 스님들이 선방 문틈에 문풍지를 바르고 있었고, 선방 흑벽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겨울이 되어가는 설악산 골짜기로 산새소리가 날아들고, 방부를 들인 스님들은 문 없는 문을 닫아걸었다. 닫힌 선방 문 위엔 '무금'이라고 쓴 편액이 시계처럼 걸리고, 흐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0도 정토일체제불상호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삼하는 아미타불의 명호와 아미타경을 듣는 사람은 현재에서 모든 부처님의 수호를 받고 내세에서는 정토에 왕생해 깨달음에 이르는 불퇴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도상도 제14도에서 시작하여 제19도까지 이어지는 도상들과 비슷하다. 가장 많은 16위의 제불들이 첫째 열, 둘째 열에는 다섯 분의 부처님, 셋째 열에는 여섯 분의 부처님을 3열의 구조로 배치한 도상이다. 이 도상은 12번째 목판 원판의 끝부분에서 13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의 앞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이경을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고 하는가? 사리불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듣고 지니거나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이 선남자 선여인이 모두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 아뇩다라삼박삼보리(無上正等覺)에서 물러서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그대들은 모두 내 말과 여러 부처님들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舍利弗 於汝意云何 何故 名爲一切諸佛所護念 經 舍利弗 若有善男子善女人 聞是經 受持者 及聞諸佛名者 是諸善男子善女人 皆爲一切諸佛之所護念 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故 舍利弗 汝等 皆當信受我語 及諸佛所說)

이제 우리는 자신 앞에 놓인 이득에만 연연해 내세의 문턱에서 한없이 후회하는 중생이 될 것이 아니다.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업연을 가없이 여겨 한없는 자비로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내세의 문턱에서 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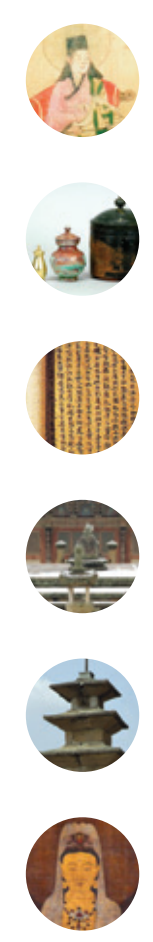
타부처님의 영접을 받고 극락으로 왕생하는 불자들이 되어야겠다.

명나라 때 중국의 우익대사가 아미타경 요해를 통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면, 생각하든, 안하든, 믿든 안 믿든, 항상 진리와 인연을 맺는 씨앗이 된다"고 칭명염불의 공덕을 설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염불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고득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염불정진 할 때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0도: 정토일체제불상호장엄(淨土一切諸佛相好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이것이 한국불교 최초!

불상, 불화, 탑 등 한국 불교문화 각각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44가지 이야기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한국불교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한 교양서

우리의 불교문화 유산들 하나하나를 최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연을 품고 우리에게 선보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밝혀낸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책장을 넘기며 따라가다 보면 때론 1,7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때론 불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 듯, 때론 오래된 기록물 더미에 묻힌 듯, 우리 불교문화의 발자취가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이다.



심정섭 저 | 신국판변형 | 392쪽 | 값 1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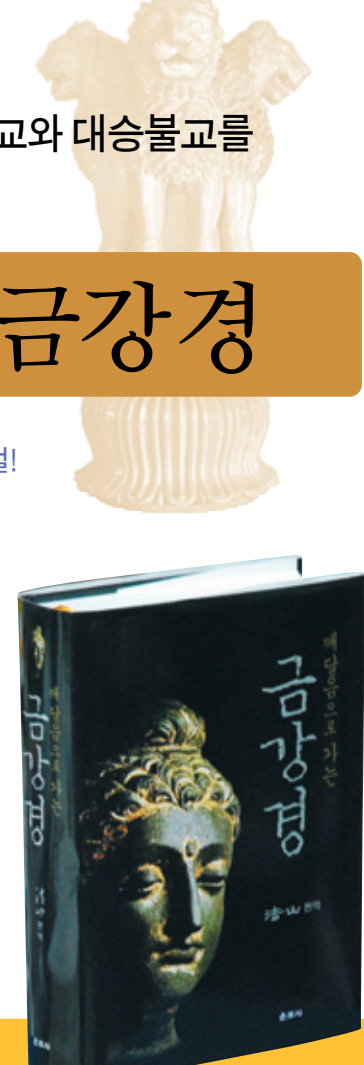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다양한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지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600여 컷의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율령리 | 764쪽 | 값 38,000원